

2024학년도

연계 체감 향상 프로젝트

EBS 제압하기

위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저

WINNERWE

들어가기 전에...

연계 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연계되어봤자 어차피 다시 읽고 풀기 때문에 아무 의미없다.

.
. .
.

연계되어도 똑같이 어렵다.

시간만 뺏는다.

모두 연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현상이며 6, 9, 수능에서 모두 한 지문은 연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연계는 연계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에만 수험생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단지 더 쉽게 푸는 것보다도 파본 검사 중 맞이하는 익숙한 지문만으로도 긴장감은 한층 누그러질 것입니다.

작년 6월, 9월, 수능 모두 한 지문씩 연계 체감이 당연히 가능한 지문이 나왔고 이는 그것을 대비할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6월 평가원에서 비타민K 지문, 이중차분법 지문, 그리고 9월 평가원에서는 유류분 지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지문을 통해 이미 연계 체감은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올해는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갑니다.

6, 9, 수능에 출제될만한 비문학 제재를 선별해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드림

(1) 기초 지식 쌓기

1 대공황과 사전적 실질 이자율

1929년 10월,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주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기업들은 파산하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경기침체가 이어졌다. 이러한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통화 가설과 관련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공황 발생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지만, 그중에서도 통화 가설은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였다. 통화 가설이란, 경제 전반적인 거시적인 조건과는 독립적으로 통화량에 따라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 가설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 가설이 적용되지 않았다. 경제학자 A는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통화 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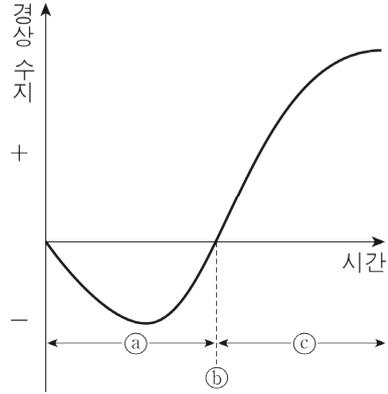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경제학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공황 당시에는 통화량이 감소함에 따라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수록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낮아지게 되어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다. 반면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화 정책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대공황 이후, 경제학자들은 통화 가설과 같은 새로운 이론들을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이들 이론을 기반으로 한 통화 정책이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연준(Federal Reserve)도 통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율을 조절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과 정치적 영향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학자들은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통화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더욱 발전된 경제 모형과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경제적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SUB
주간모의고사
1화·2회

제 1 교시

국어 영역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이론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관한 예측을 시도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론에서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학은 이들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는데, 최근 이 흐름은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전통적 경제학의 가정을 문제 삼는 ㉡행동경제학에 의해 주도되었다.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 영역이 저축과 소비에 관련한 분야이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면서 전 생애차원에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실행한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또한 돈에는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꼬리표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아 전용(轉用)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전용 가능성’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을 촉진함으로써 후생을 높여준다고도 믿는다. 전통적 경제학은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소비 수준을 비교적 고르게 유지할 것이며 소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퇴직 후 급속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연령에 따른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연령에 따른 실제 소비 패턴은 연령에 따른 소득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이상현상을 ‘유동성 제약’ 개념을 통해 해명했다. 즉 금융 시장이 완전치 않아 미래 소득이나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재 소비에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하므로, 소비 수준이 이론의 예측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청년 시절과 노년 시절의 소비가 예측보다 적은 것은 외부 환경의 제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심적 회계’에 의해 설명한다. 사람들은 현금, 보통 예금, 저축 예금, 주택 등 각종 자산을 마음속 별개의 계정에 배치하고 그 사용에도 상이한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산의 피라미드 중 맨 아래층에는 지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인 현금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지출에 사용된다. 많은 이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저축 예금이 있는데도 연리 20%가 넘는 신용카드 현금 대출 서비스를 받아 해결한다. 금융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예금을 인출해 지출을 하는 것임에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낮은 금리로 저축을 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속 가장 신성한 계정에는 퇴직 연금이나 주택과 같이 노후대비용 자산들이 놓여 있는데, 이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인출이 유보되는 자산들이다. 심적 회계가 이런 방

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자산의 전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특정 연도에 행하는 소비는 일생 동안의 소득 총액뿐 아니라 그 소득을 낳는 자산들이 마음속 어느 계정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고 전 생애에 걸친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만, 미래보다 현재를 더 선호하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장기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속박 장치를 마음속에 만들어 내는데, 이러한 자기 통제 기제가 바로 심적 회계이다. 심적 회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 경제학이 주목했던 유동성 제약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지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심적 회계가 당장의 유혹을 억누르고 현재의 지출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 곧 저축을 스스로 강제하는 기제라면, 퇴직 연금이나 국민 연금제도는 이런 기제가 사회적 차원에서 구현된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상 현상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 ② 퇴직 연금 제도는 개인의 심적 회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다.
 - ③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미룸으로써 미래의 지출 능력을 높이려는 행위이다.
 - ④ 심적 회계는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본능을 억제하려는 자기통제 기제이다.
 - ⑤ 자산 피라미드의 하층부에 있는 자산일수록 인출을 하지 않으려는 계정에 배치된다.